< 환 경 교 육 분 야 >

1. 강원도교육청 환경단체활동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

- 자연체험 프로그램 '자연사랑교실'

활동개요

□사업신청 : 1/22

□운영비용 : 9,000,000원

□운영횟수 : 28회

- 방과후 숲학교 : 7회, 196명
- 방과후 환경학교 : 20회, 516명
- 자연여행 : 1회(30명, 통영)

□연 참가인원 : 742명

1-1. 방과후 숲학교

활동내용

□반곡초등학교 5학년 6반, 28명

□강사 : 강신범, 김미자, 조은자, 조현숙

회차	날짜	장소	인원	프로그램
1회차	9/3	반곡초등학교	28명	학교숲의 이모저모 -식물로 나를 표현해 보기
2회차	9/10	원주 등록문화재	28명	원주의 도시숲과 역사 -근대문화와 도시숲 이야기
3회차	9/17	반곡초등학교	28명	자원순환 '돌고 돌아'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4회차	10/10	폐기물종합처리단지	28명	매립장 및 재활용센터 탐방 -우리가 버린 쓰레기 어디로 가나요?
5회차	10/17	백운산자연휴양림	28명	국립백운산자연휴양림 탐방 -휴양림과 학교숲 비교해 보기
6회차	11/21	반곡초등학교	28명	학교숲의 이모저모 -학교숲 속 빙고게임
7회차	11/28	행구수변공원	28명	자연물 올림픽 -나무열매들을 이용한 자연올림픽

활동사진





1-2. 방과후 환경학교

활동내용

□강사 : 강신범, 김미자, 조은자, 조현숙

학교	회차	날짜	인원	프로그램
구곡초등학교(5-6)	1회차	4/19	25	학교숲 속 빙고게임
	2회차	5/3	25	자원순환 '돌고 돌아'
무실초등학교(4-1)	3회차	5/10	26	학교숲 속 빙고게임
	10회차	6/7	26	자원순환 '돌고 돌아'
무실초등학교(4-2)	4회차	5/10	26	학교숲 속 빙고게임
	11회차	6/7	26	자원순환 '돌고 돌아'
원주초등학교 돌봄교실	5회차	5/14	25	학교숲 속 빙고게임
	18회차	9/24	25	자원순환 '돌고 돌아'
무실초등학교(4-4)	6회차	5/24	26	학교숲 속 빙고게임
	8회차	5/31	26	자원순환 '돌고 돌아'
무실초등학교(4-3)	7회차	5/24	26	학교숲 속 빙고게임
	9회차	5/31	26	자원순환 '돌고 돌아'
섬강초등학교(1-9)	12회차	6/17	25	자원순환 '돌고 돌아'
섬강초등학교(1-10)	13회차	6/17	25	자원순환 '돌고 돌아'
섬강초등학교(1-7)	14회차	6/18	25	자원순환 '돌고 돌아'
섬강초등학교(1-8)	15회차	6/18	25	자원순환 '돌고 돌아'
만대초등학교(3-2)	16회차	9/4	28	자원순환 '돌고 돌아'
	17회차	9/18	28	학교숲 속 빙고게임
만대초등학교(3-4)	19회차	10/10	27	학교숲 속 빙고게임
	20회차	10/17	27	자원순환 '돌고 돌아'

활동사진





1-3. 자연여행

활동내용

□일반시민, 학생, 학부모

날짜	장소	인원	프로그램
11/9~11/10	통영 만지도	30명	통영 만지도 및 통영 일대(동피랑 등) 탐방

2. 쓰레기 감량화 교육홍보 프로그램 사업

활동개요

□사업신청 : 1/25

□운영비용 : 25,000,000원

□운영횟수 및 인원 : 100회, 3,281명

- 교안연구회 : 8회, 64명
- 시민자원순환교육 : 6회, 67명
- 자원순환학교 : 56회, 2,432명
- 현장견학 : 28회, 718명

2-1. 교안연구회 구성 및 운영

□목적 : 쓰레기 감량화 교육홍보 사업의 기초가 되는 교육교재 제작과 동일한 교육 커리큘럼 운영, 통일된 교안의 확보, 교육 운영의 중심주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운영되었으며 교안연구회 회원들이 대부분 주강사로 활동하고 있어 교육 후 피드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

□구성 : 8명(강신범, 김은지, 박경호, 이진하, 전재란, 정원옥, 조은자, 조현숙)

□운영횟수

- 8회
- 3/27, 4/3, 4/9, 4/11, 4/19, 4/25, 5/2, 12/2

□성과 : 교육교재 수정 보완 및 간이 교구 제작

2-2. 시민자원순환교육

□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에 대한 교육과 일반 환경교육을 진행

□구성 : 6강

□교육구성

강좌	강의명	강사	날짜
1강	원주의 쓰레기	김경준	11/5
2강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신호	11/12
3강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탐방	박경호	11/16
4강	기후변화와 음식물 쓰레기	제현수	11/19
5강	헌 책을 활용한 리사이클링	전재란	11/26
6강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김신범	12/3

2-3. 자원순환교육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내에서 쓰레기 감량교육을 진행

□참여인원 : 56회, 2,432명

□강사: 강신범, 김미자, 박경호, 서연남, 이진하, 전재란, 정원옥, 정일선, 조은자, 조현숙

활동내용

회차	대상	인원	날짜
1	원주여자중학교 1학년 환경담당 학생	82명	4/2
2	반곡초등학교 4학년 3개 반	78명	4/15
3	반곡초등학교 4학년 4개 반	104명	4/16
4	버들초등학교 4학년 4개 반	99명	5/7
5	프라임상상유치원 6세	46명	5/16
6	프라임상상유치원 7세	20명	5/16
7	버들초등학교 4학년 4개 반	99명	5/16

8	금대초등학교 1~3학년	29명	5/22
9	버들초등학교 3학년 4개 반	103명	5/23
10	버들초등학교 3학년 4개 반	100명	5/23
11	솔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5세	17명	6/4
12	솔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세	22명	6/4
13	중앙초등학교 5학년	30명	6/5
14	도담유치원 5세	42명	6/11
15	도담유치원 6세	44명	6/11
16	도담유치원 7세	36명	6/12
17	중앙초등학교 3학년	36명	6/13
18	그림유치원 6세, 7세	17명	6/21
19	솔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7세	23명	6/25
20	섬강초등학교(1-5)	25명	6/26
21	섬강초등학교(1-6)	25명	6/26
22	섬강초등학교(1-3)	25명	6/27
23	섬강초등학교(1-4)	25명	6/27
24	섬강초등학교(1-1)	25명	6/28
25	섬강초등학교(1-2)	25명	6/28
26	반곡초등학교 1학년 2개 반	60명	7/1
27	반곡초등학교 1학년 2개 반	60명	7/1
28	반곡초등학교 1학년 2개 반	60명	7/2
29	육민관중학교 1학년	83명	7/8
30	육민관중학교 2학년	93명	7/9
31	원주유치원 5세, 7세	40명	7/9
32	육민관중학교 3학년	86명	7/10
33	반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5세, 6세	38명	7/16
34	반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7세	24명	7/16
35	한강유치원 6세	24명	8/12
36	한강유치원 6세	24명	8/12

37	한강유치원 5세	24명	8/13
38	한강유치원 5세	24명	8/13
39	한강유치원 5세	24명	8/13
40	예그랑유치원 6세	41명	8/26
41	예그랑유치원 6세	41명	8/26
42	학성중학교 환경동아리	19명	9/5
43	원주여자중학교 1학년 환경담당 학생	100명	9/10
44	한강유치원 7세 나무들반	24명	9/16
45	한강유치원 7세 열매들반	24명	9/16
46	한강유치원 7세 넓은들반	24명	9/16
47	소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세, 7세	11명	9/30
48	장양초등학교 3학년	24명	10/1
49	장양초등학교(5-2)	17명	10/1
50	반곡초등학교(5-2)	26명	11/8
51	제일유치원	47명	11/12
52	무실빛유치원 5세	19명	11/13
53	무실빛유치원 6세	19명	11/13
54	그린나래유치원 7세	40명	11/13
55	명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세	34명	11/14
56	명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7세	11명	11/14

2-4. 현장견학

□원주 관내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주폐기물처리단지 내 매립장 및 재활용품 선별장 탐방을 진행

□참여인원 : 28회, 718명

□강사: 강신범, 김미자, 박경호, 서연남, 이진하, 전재란, 정원옥, 정일선, 조은자, 조현숙

활동내용

회차	대상	인원	날짜
1	섬강초등학교(3-3)	28명	4/22
2	섬강초등학교(3-5)	28명	4/23

3	섬강초등학교(3-4)	28명	4/24
4	섬강초등학교(3-6)	28명	4/25
5	섬강초등학교(3-1)	28명	4/26
6	섬강초등학교(3-2)	28명	4/29
7	금대초등학교 1학년~3학년	29명	5/22
8	도담유치원 7세	36명	6/19
9	평원초등학교(4-4)	25명	6/24
10	평원초등학교(4-3)	25명	7/2
11	평원초등학교(4-5)	25명	7/3
12	평원초등학교(4-1)	27명	7/4
13	평원초등학교(4-2)	26명	7/12
14	반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4명	7/23
15	한강유치원 7세 나무들반	24명	9/17
16	북원중학교 환경동아리	25명	9/18
17	소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7세	24명	9/19
18	학성중학교 환경동아리	10명	9/19
19	한강유치원 7세	24명	9/20
20	한강유치원 7세	24명	9/23
21	중앙초등학교 5학년	25명	9/25
22	반곡초등학교(5-2)	26명	11/7
23	제일유치원 7세	15명	11/7
24	예그랑유치원 7세	24명	11/11
25	예그랑유치원 7세	24명	11/11
26	예그랑유치원 7세	24명	11/11
27	명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7세	11명	11/15
28	무실빛유치원 7세	46명	11/20

※ 본 활동을 통해 쓰레기감량 유공 강원도지사 표창 수상 : 12/31

3. 기타 교육

3-1. 무실빛 유치원 생태교육

□무실빛유치원의 제안으로 다년동안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행구동 수변공원에서 교육이 진행

- 4/4, 5/20, 5/22, 6/13, 6/14, 7/4, 7/5, 9/5, 9/6, 10/10, 10/11, 11/7, 11/8

3-2. 춘천환경운동연합 주관 자원순환 교육

□원주시청이 쓰레기 감량과 관련된 정책을 내세우면서 춘천환경운동연합이 쓰레기와 관련된 강사양성교육과 함께 학교 교육을 진항하게 되었음.

□이에 강사양성교육에는 김경준 사무국장이 주로 참여하여 교육을 진행하였고, 학교 교육의 경우 강사가 양성되기 전 시작되었기 때문에 원주환경운동연합 교육팀에서 맡아서 진행하였음.

□강사양성교육 : 10/14, 10/16, 10/19

□학교 자원순환 교육

- 교안연구회·춘천환경운동연합 사전 회의 : 10/10
- 1차(10/8) : 상천초등학교
- 2차(10/8) : 근화초등학교
- 3차(10/15) : 동내초등학교
- 4차(10/15) : 동내초등학교
- 5차(10/18) : 봄내초등학교
- 6차(10/21) : 상천초등학교
- 7차(10/21) : 상천초등학교
- 8차(10/31) : 호반초등학교
- 9차(10/31) : 상천초등학교
- 10차(11/1) : 봄내초등학교
- 11차(11/1) : 봄내초등학교
- 12차(11/4) : 봄내초등학교
- 13차(11/4) : 동내초등학교
- 14차(11/5) : 봄내초등학교
- 15차(11/5) : 동내초등학교
- 16차(11/6) : 봄내초등학교
- 17차(11/6) : 봄내초등학교
- 18차(11/18) : 동내초등학교

- 19차(11/18) : 동내초등학교
- 20차(11/25) : 상천초등학교
- 21차(12/9) : 봄내초등학교
- 22차(12/9) : 봄내초등학교
- 23차(12/9) : 봄내초등학교
- 24차(12/10) : 봄내초등학교
- 25차(12/10) : 봄내초등학교

3-3. 기타 환경 교육

□원주여자중학교 선생님 대상 쓰레기 교육 : 2/14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원순환운동본부 주관, 자원순환강사 양성과정 교육 : 4/18
□원주청소년문화의집 봉사동아리(20명) 환경교육 : 6/1
□이화유치원 원주폐기물종합처리단지 탐방 : 6/5
□횡성중학교 생물다양성(하천) 교육 : 6/11
□교사직무연수 환경교육-폐기물 : 6/27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주관, 원주천 수중생태모니터링 : 8/31
□태백생명의숲 숲해설가 시연 심사 : 11/23

< 원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1.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1명(대표 포함)

활동내용

□정기회의 : 1/15, 2/20, 3/20, 4/24, 5/14, 6/12, 7/17, 8/21, 9/18, 10/16, 12/18

□감사 및 정기총회

- 총회준비 소위원회 : 1/14, 1/23
- 감사 : 1/25
- 정기총회 : 1/29

1-1. 이달의 운영위원

□4월 : 김선기, 성락철, 이동란, 이형표, 차영배

- 참석 : 이동란, 차영배

□5월 : 고유민, 김영하, 김익록, 김혜영, 이은정

- 참석: 김혜영

□6월 : 김갑태, 김영주, 김응석, 이인숙, 정향화

□7월 : 계주흉, 김정삼, 이용훈, 김준섭, 김진희

- 참석 : 계주홍

□8월 : 김선희, 박영금, 백귀헌, 이시근, 황도경

□9월 : 김영미, 석유진, 손병용, 엄광호, 원노연

□10월 : 김문영, 엄안섭, 전인귀, 진혜영, 한광덕

□11월 : 문응기, 심상돈, 신영철, 안관수, 이혜숙

2. 회원모임

□원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의 모임으로서, 누구나 어떤 주제로든 만들 수 있음.

2-1. 생명미술시민작가회

□회원 수 : 11명

활동내용

□정기모임 : 1/16, 2/14, 3/21, 5/17, 6/24, 9/21, 10/28, 12/13, 12/26

□정기모임 : 이동란회원 개인전, 8/12
□워크숍 : 4/12~14, 강릉 강신범회원 자택
□제23회 정기전시회 : 8/16~8/21,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2-2. 생명영상나눔이
□회원 수 : 4명
활동내용
□한국·일본 정기교류전-니가타현 : 7/25~8/2
□정기전시회-고대도시 원주사진전 : 10/15~10/20, 시립중앙도서관 전시실

2-3. 숲사람들
□회원 수 : 28명

3. 회원 행사
3-1. 회원확대실천단
활동내용
□회원확대실천단 운영
- 발대식 : 9/25
- 운영 일정 : 9/25~총회 전까지
- 목표 : 100명

□결과(2020년 2월 7일까지)
- 증가한 회원 수 : 총 37명(신규 31명, 회비 증액(가족회원 분리 포함) 6명)
- 총 증가 월 회비 : 555,000원
- 회원확대실천 우수 회원 : 박종만(3명), 전숙희(3명)

3-2. 영화 번개
활동내용
□영화 '삽질' : 11/21, 3명

3-3. 비정기 회원모임
활동내용

□모나미 후원, 캘리그라피·일러스트 교육 : 12/13
□회원송년회 : 12/18

4. 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강원환경운동연합)

활동내용

□대표자 회의 : 2/18(횡성), 6/17(원주), 10/24(횡성), 11/22(춘천)
□사무국장 회의 : 3/11(속초), 5/3(원주), 10/4(춘천), 11/8(속초), 11/18(온라인)
□활동가 워크숍 : 7/29~7/30(속초, 고성)
□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 창립준비위원회 회의 : 2/15
- 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창립 : 6/28
□강원환경연합 회원대회 : 5/25~5/26
□강원환경운동연합 창립 : 12/3, 춘천

5. 중앙환경운동연합

□대의원대회
□대표자회의

5-1. 사무국처장단회의

- 3/14, 4/2, 5/9, 7/18, 9/19

5-2. 조직위원회

- 5/27, 7/22, 11/6

5-3. 자연생태위원회

- 10/29

5-4. 태양광·풍력 대응 가이드라인 TF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생태계 보전 사이에서 단체 간, 활동가 간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내에서 다른 목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었고, 민원이나 활동에 되도록 동일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작성이 요구되었다.

□가장 갈등이 많은 에너지팀과 생태팀이 만나서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대원칙을 제외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합의되지 않아서 대상입지 검토를 쉽게 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라인 정도로 마무리 되었다.

- 전체 회의 : 1/9, 3/5
- 가이드라인 작성 자문 회의 : 4/18

5-5. 기타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기자회견 : 2/13, 광화문

□환경운동연합 신울진~신가평 500HVDC 대응회의 : 3/19

□환경운동연합 탐조프로그램 형장 답사 : 5/16, 강원대학교 학술림 봉명서원

□전국환경운동연합 회원담당자 MRM교육 : 11/12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11/21, 국회의원 회관

□G-suite 도입 관련 환경운동연합 총장 미팅 : 11/12

< 기 타 >

1. 회의/토론/자문/위원회 등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본회의, 2분과)

- 위원: 김은지 자연생태팀장
- 1/10, 1/24, 2/12, 2/14, 2/28, 3/14, 3/26, 3/28, 4/11, 4/23, 4/25, 5/9, 5/23, 6/4, 6/13, 6/27, 7/9, 7/11, 7/25, 8/8, 8/22, 9/10, 9/26, 10/10, 10/24, 10/29, 11/14, 11/26, 11/28, 12/12, 12/26

□북부지방산림청 주관

- 임도평가 사전심의 회의 : 1/22, 9/18
- 벌채조림 사전심의 회의 : 2/14, 4/25, 6/19, 8/21
- 인제국유림관리소 벌채조림 사전 심의 : 3/15
- 벌채조림 현장 심의 : 7/10
- 임도타당성 평가 심의 : 9/27, 12/10
- 토목설계 심사 : 10/24

□학교 석면 제거 모니터링- 태장초등학교 : 1/14, 1/18, 1/28

□상지대학교 주관

- 신년인사회 : 1/2
- 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 : 1/18
- 정대화 총장 취임식 : 3/27

□원주도시재생지원센터 봉산동 재생활동 참여방안 협의 : 1/18

□공공기관 간담 및 미팅

- 원주시청 생활자원과 미팅 : 2/19
- 산림청 환경보호과 간담 : 3/22
- 강원도 환경과 간담 : 4/1
- 강원도 경제부지사 간담 : 10/21

□양구국유림관리소 주관 벌채조림 사전 심의 : 2/27

□원주의료원 인사위원회 : 4/16, 12/30

□강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 지속가능발전조례 토론회 : 4/17

□춘천 도시숲 국제포럼 : 5/22

□매지호 거북섬 생태복원계획 자문위원회 : 6/4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민참여 혁신단 : 7/18, 12/11

□KBS원주 방송국 구조조정(춘천총국 통합) 반대 설명회 : 8/8
□서울국유림관리소 주관 벌채조림 사전심의 회의 : 9/9
□국민건강보험공단 디자인씽킹 워크숍 : 9/19, 10/11, 10/23, 11/7, 11/26
□숲과나눔 학술포럼 발표 : 11/27
□산림품질 모니터링 : 9/20, 9/24

2. 언론/기자회견/성명서 등

□TNB 라디오 강원매거진 '환경이 미래다'
- 1/7(원주사회조사, 원주천), 2/18(거북섬, 중앙공원 공사장 세륜시설 미설치), 3/18(상수원보호구역 해제), 4/15(원주천댐), 4/22(지역의 환경활동가), 5/20(화학물질 성명서), 6/3(환경의날), 7/15(노후수도, 수질오염총량제), 8/19(오색케이블카 갈등조정협의회), 9/16(미군기지 조기반환), 10/21(미세먼지), 11/18(케이블카, SRF),

□KBS춘천 라디오 '강원의 아침'
- 1/9(석면), 1/23(가리왕산), 2/20(가리왕산), 3/7(미세먼지), 3/20(생태계교란생물), 4/3(플라스틱), 4/25(원주천댐), 5/8(공원일몰제), 5/22(화학물질 및 미세먼지), 6/5(환경의날), 6/19(조류 충돌), 7/3(수돗물 녹물), 7/17(기후변화), 8/21(설악산 케이블카), 9/4(케이블카와 환경영향평가), 9/18(설악산 케이블카), 9/26(문막 SRF열병합발전소), 10/2(설악산케이블카와 지역 언론), 10/16(송전탑), 10/30(강릉과 아연제련소), 11/14(강원도의 산림), 11/28(시민의 과학), 12/12(환경민원), 12/26(미세먼지)

□KBS '아침이 좋다'
-1/25(가리왕산), 10/22

□SBS '물은 생명이다'-가리왕산
- 촬영: 2/7, 2/8
- 방송: 2/17

□KBS춘천 '집중진단 강원'
- 2/20(가리왕산), 3/19(강원도 미세먼지)

□독일ARD TV-가리왕산 (2/21)
□KBS춘천 '시사토크 강냉이 인터뷰-산지 태양광 (4/3)
□동해안~신가평 송전탑 건설 철회 요구 기자회견 (4/23)
□화학물질 대기 배출 실태조사 엄중 실시 요구 성명서 (5/7)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반대 기자회견 (5/25)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끝장투쟁 기자회견 (5/31)

□MBC강원영동 TV-석포제련소 조업정지 (6/19)

□KBS춘천 라디오-평창 태양광 (6/24)

□MBC강원영동 라디오 '라디오 동서남북'-산지 태양광 (6/26)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전국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8/6)

□G1-원주환경운동연합 조류충돌 모니터단 모집 (8/9)

□강원CBS 라디오

- 8/12(조류충돌과 모니터단 모집), 12/6(강원환경운동연합 창립)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9/2)

□강원도 송전철탑반대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기자회견 (9/18)

□SRF열병합발전소 부속건물 건축허가신청 관련 논평 (9/19)

□KBS원주-SRF열병합발전소 (9/24)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계획 백지화 요구 기자회견 (10/22)

□시민자원순환교육 안내

- 강원도민일보 (11/4), 강원일보 (11/5)

□G1 '시사Q 강원신문고'-환경 민원

- 촬영 : 12/6
- 방송 : 12/10

□원주 미군기지(캠프롱, 캠프이글) 반환 관련 논평 (12/12)

3. 역량 교육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G-suite 교육

- 9/23, 10/7, 10/14

□1365 자원봉사포털 수요처 관리자 교육 : 10/10

□1365 자원봉사포털 수요처 관리 현장 점검 : 10/15

< 연 대 활 동 >

1.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 : 김경준

□운영위원회 : 3/20, 7/23

□정기총회 준비회의 : 1/11

□정기총회 : 1/16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회의 : 2/25

□학교숲 생태지도 만들기

- 생태지도 회의 및 답사 : 2/14, 4/4, 4/15, 4/17, 4/30, 5/7, 6/10, 7/11, 9/9
- 1차(4/24) : 중앙초등학교
- 2차(4/25) : 원주초등학교
- 3차(4/26) : 흥업초등학교
- 4차(5/9) : 고산초등학교
- 5차(5/13) : 서곡초등학교
- 6차(5/15) : 우산초등학교
- 7차(5/16) : 반계초등학교
- 8차(5/17) : 명륜초등학교
- 9차(5/30) : 장양초등학교
- 10차(6/20) : 매지초등학교
- 11차(6/24) : 교동초등학교
- 12차(7/19) : 금대초등학교
- 13차(9/19) : 둔둔초등학교
- 14차(9/20) : 호저초등학교
- 15차(9/26) : 단구초등학교
- 학교숲 생태지도 동화책 삽화 회의 : 11/4

□차없는 원일로에서 만나요 “놀다보니 더 맑음” : 5/18

□원주환경운동연합-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 회의 : 8/12

□지속가능발전 시민 속으로-원주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집담회 : 10/30

□기후강사·기후해설사 양성과정 강의-쓰레기와 자원순환 : 11/27

□하천모니터링단 교육 : 12/6, 12/9

2. 강원도교육청

□강원교육 활성화 활동

- 강원도교육청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회의 : 3/27
- 강원희망교육재단 현원철 이사 간담 : 4/16

□강원도교육청 시민사회 정책자문회의 워킹그룹 회의

- 7/13, 8/1, 8/12, 8/21, 10/31

3.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김경준

□활동

- 강릉도암댐 반대활동을 위한 사전모임 : 5/17
- 속초 영랑호 산불피해 확인 및 복원계획을 위한 답사 : 5/24
- 안인화력발전소 관련 강릉시민행동 미팅 : 7/4
- 도암댐 및 남한강 수계(정선·영월) 답사 : 7/5

4. 원주시민사회단체 활동가모임

□원주시민사회 신년하례식

- 준비회의 : 2/7, 2/12, 2/19, 2/22
- 신년하례식 : 2/23(무위당 기념관)

5. 기타

□한강유역네트워크·5대강유역협의회

- 정기총회 : 2/13

□(사)강원살림

- 정기총회 : 4/18

□기후위기 비상행동

- 전국 집회(거리행진) : 9/21, 마로니에공원~종각

2019년 재정결산보고

2019년 수지계산서

원주환경운동연합 2019년 12월 31일 현재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경상 수익	회 비	47,311,000	인건비	활 동 비	44,950,000
	일반사업수익	26,404,168	관 리 운영비	교 통 비	1,102,400
	후 원 금	5,791,000		도서인쇄비	521,000
	잡 수 익	58,176		문서발송비	43,180
	차 입	2,000,000		수 용 비	523,500
	소계	81,564,344		시설운영비	644,870
과제수익	강원도교육청	9,304,217		임 차 료	6,840,000
	쓰레기 감량화	25,144,967		제세공과금	5,556,810
	소계	34,449,184		지급수수료	403,420
				출 장 비	1,207,700
				통 신 비	448,000
				회 의 비	907,000
			5대 보험	국 민 연 금	1,826,780
				건 강 보 험	2,440,900
				고 용 보 험	463,220
				산 재 보 험	512,020
				장기요양보험	175,940
			사업비	일반사업비	4,052,600
				과제사업비	10,000
				연대사업비	360,000
				지역분담금	2,521,420
			기금적립		3,047,654
			기타(차입 및 회비반환)		2,000,000
			보조금	지출	33,678,360
				사업비 잔액	765,710
				이자	5,114
소 계		116,013,528	소 계		115,007,598
2018년 이월금		922,597	2020년 이월금		1,928,527
합 계		116,936,125	합 계		116,936,125

2018년~2019년 수지계산서 비교

원주환경운동연합 2018년 12월 31일 현재

수 입				지 출			
항 목		2018	2019	항 목		2018	2019
경상수익	회 비	45,881,000	47,311,000	인건비	활 동 비	41,200,000	44,950,000
	일반사업수익	19,341,030	26,404,168	관 리 운영비	교 통 비	1,247,000	1,102,400
	후 원 금	4,475,000	5,791,000		도서인쇄비	546,000	521,000
	잡 수 익	98,569	58,176		문서발송비	289,660	43,180
	차 입	6,200,000	2,000,000		수 용 비	402,270	523,500
과제수익	도교육청보조	9,006,060	9,304,217		시설운영비	668,000	644,870
	쓰레기 감량화	30,041,027	25,144,967		식 비	147,300	0
					임 차 료	6,210,000	6,840,000
					제세공과금	5,941,030	5,556,810
					지급수수료	400,137	403,420
					출 장 비	1,184,000	1,207,700
					통 신 비	99,000	448,000
					회 의 비	967,000	907,000
				5대 보험	국 민 연 금	2,014,560	1,826,780
					건 강 보 험	1,627,800	2,440,900
					고 용 보 험	515,850	463,220
					산 재 보 험	575,200	512,020
					장기요양보험	119,860	175,940
				사업비	일반사업비	6,945,560	4,052,600
					과제사업비	6,070	10,000
					연대사업비	460,000	360,000
					지역분담금	2,425,680	2,521,420
				기금적립		0	3,047,654
				기타(차입반환 등)		5,000,000	2,000,000
				보조금	지출	38,518,580	33,678,360
					잔액	528,507	765,710
					이자	0	5,114
소 계		115,042,686	116,013,528	소 계		118,039,064	115,007,598
전년이월금		3,918,975	922,597	명년이월금		922,597	1,928,527
합 계		118,961,661	116,936,125	합 계		118,961,661	116,936,125

2019년 예금 및 현금내역

(2019년 12월 31일 기준)

	항 목		내 역	비 고
자 산 및 적립금	임차보증금		15,000,000	2018. 9. 5 ~ 2020. 9. 4, 신태선
	환경센터 기금		12,229,918	~ 2019. 12. 31, 밝음신협
	퇴직적립금		11,250,000	신한은행
	예치금	전 화	384,000	
		프린터	300,000	HP솔루션(2015.8.21)
	현 금		1,939,248	* 신한은행(1,544,631원) * 농협(19,595원) * 밝음신협(10,495원) * 현금(364,527원)
	소 계		41,103,166	
부채 및 차입금			0	
합 계			41,103,166	

2019년 월별 수입 - 지출 세부내역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경상 수입	회 비	3,873,000	3,738,000	3,848,000	3,788,000	4,128,000	3,893,000	4,028,000	3,878,000	3,903,000	3,938,000	4,138,000	4,158,000	47,311,000
	일반사업수익	2,114,990	600,000	1,601,474	2,087,700	1,327,880	1,600,000	1,830,000	1,996,200	1,505,910	3,205,100	7,367,314	1,167,600	26,404,168
	후 원 금	411,000	120,000	123,000	200,000	147,000	118,000	150,000	460,000	128,000	1,134,000	1,450,000	1,350,000	5,791,000
	잡 수 익	0	0	0	0	0	57,432	0	0	0	0	0	744	58,176
	차 입	0	2,000,000	0	0	0	0	0	0	0	0	0	0	2,000,000
	소 계	6,398,990	6,458,000	5,572,474	6,075,700	5,602,880	5,668,432	6,008,000	6,334,200	5,536,910	8,277,100	12,955,314	6,676,344	81,564,344
과제수익(교육청,쓰레기)		0	0	22,000,000	0	105,000	4,070	12,000,000	0	335,000	0	0	5,114	34,449,184
전월 이월금		922,597	658,447	597,567	203,771	461,581	360,391	295,813	285,903	901,703	181,833	2,206,783	1,782,413	

인건비	활 동 비	3,500,000	3,950,000	3,750,000	3,750,000	3,750,000	3,750,000	3,750,000	3,750,000	3,750,000	3,750,000	3,750,000	3,750,000	44,950,000
관 리 운영비	교 통 비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8,000	114,4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102,400
	도서인쇄비	33,000	33,000	63,000	33,000	33,000	33,000	98,000	33,000	63,000	33,000	33,000	33,000	521,000
	문서발송비	34,020	5,560	0	0	0	0	0	0	0	0	0	3,600	43,180
	수 용 비	29,400	5,000	58,900	10,000	10,000	14,400	88,920	20,180	20,000	111,000	90,000	65,700	523,500
	시설운영비	222,870	11,000	11,000	11,000	33,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290,000	644,870
	임 차 료	570,000	570,000	570,000	570,000	570,000	570,000	570,000	570,000	570,000	570,000	570,000	570,000	6,840,000
	제세공과금	603,130	543,670	518,660	436,310	387,410	386,380	409,550	483,500	347,840	528,310	445,580	466,470	5,556,810
	지급수수료	33,560	32,340	32,640	32,480	32,780	33,800	33,640	32,460	32,480	34,380	37,220	35,640	403,420
	출 장 비	114,000	70,000	100,000	70,000	70,000	70,000	116,100	122,600	100,000	145,000	130,000	100,000	1,207,700
	통 신 비	99,000	0	0	50,000	0	0	0	50,000	50,000	50,000	50,000	99,000	448,000
	회 의 비	91,000	112,000	123,000	0	72,000	118,000	189,000	0	128,000	74,000	0	0	907,000
5대 보험	국 민 연 금	156,400	156,400	156,400	156,400	156,400	156,400	143,880	148,900	148,900	148,900	148,900	148,900	1,826,780
	건 강 보 험	228,000	614,240	173,720	142,360	169,420	169,380	169,360	96,660	169,480	242,240	169,380	96,660	2,440,900
	고 용 보 험	32,860	32,860	36,270	57,280	34,890	34,890	34,890	34,890	34,980	46,150	41,630	41,630	463,220
	산 재 보 험	39,170	39,170	41,620	59,100	41,620	41,620	41,620	41,620	41,620	41,620	41,620	41,620	512,020
	장기요양보험	19,380	20,580	14,760	12,200	14,400	14,400	14,400	8,220	14,400	20,580	14,400	8,220	175,940
사업비	일반사업비	537,120	5,400	5,400	111,000	15,400	5,400	5,400	5,400	402,910	105,900	2,447,870	405,400	4,052,600
	과제사업비	10,000	0	0	0	0	0	0	0	0	0	0	0	10,000
	연대사업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0	60,000	30,000	30,000	30,000	360,000
	지역분담금	200,230	207,660	200,900	206,760	203,750	206,340	209,750	209,970	212,170	210,070	221,430	232,390	2,521,420
기금적립		0	0	0	0	0	0	0	0	0	0	3,047,654	0	3,047,654
기타(차입반환등)		0	0	0	0	0	0	0	0	0	0	2,000,000	0	2,000,000
보조금 과제지출 계		0	0	440,000	5,052,900	6,388,310	3,264,190	3,508,500	505,800	4,705,050	1,641,250	6,403,060	1,769,300	33,678,360
이월금		658,447	597,567	203,771	461,581	360,391	295,813	285,903	901,703	181,833	2,206,783	1,782,413	1,928,527	
경상지출 계		6,663,140	6,518,880	5,966,270	5,817,890	5,704,070	5,733,010	6,029,910	5,718,400	6,256,780	6,252,150	11,379,684	6,518,230	

2019년 월별 사업비 지출 세부내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과제 사업비	수입	강원도교육청	0	0	9,000,000	0	0	2,176	0	0	300,000	0	0	2,041	9,304,217
		쓰레기감량화	0	0	13,000,000	0	105,000	1,894	12,000,000	0	35,000	0	0	3,073	25,144,967
		소계	0	0	22,000,000	0	105,000	4,070	12,000,000	0	335,000	0	0	5,114	34,449,184
	지출	강원도교육청	0	0	0	244,400	1,260,000	1,680,000	0	30,800	1,650,000	1,251,250	2,763,550	420,000	9,300,000
		쓰레기감량화	0	0	440,000	4,808,500	5,128,310	1,584,190	3,508,500	475,000	3,055,050	390,000	3,639,510	1,349,300	24,378,360
		소계	0	0	440,000	5,052,900	6,388,310	3,264,190	3,508,500	505,800	4,705,050	1,641,250	6,403,060	1,769,300	33,678,360
일반 사업비		정기총회	465,120	0	0	0	0	0	0	0	0	0	0	0	465,120
		환경교육	0	0	0	0	0	0	0	0	0	0	15,000	0	15,000
		함께사는길	72,000	5,400	5,400	5,400	5,400	5,400	5,400	5,400	5,400	5,400	5,400	5,400	131,400
		회원확대 - 회원사업	0	0	0	105,600	0	0	0	0	397,510	0	0	400,000	903,110
		차없는거리 행사	0	0	0	0	10,000	0	0	0	0	0	0	0	10,000
		회원여행	0	0	0	0	0	0	0	0	0	100,500	2,427,470	0	2,527,970
		소계	537,120	5,400	5,400	111,000	15,400	5,400	5,400	5,400	402,910	105,900	2,447,870	405,400	4,052,600
과제 일반사업비			10,000	0	0	0	0	0	0	0	0	0	0	0	10,000
연대사업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0	60,000	30,000	30,000	30,000	360,000
지역분담금			200,230	207,660	200,900	206,760	203,750	206,340	209,750	209,970	212,170	210,070	221,430	232,390	2,521,420
합계			777,350	243,060	236,300	347,760	249,150	241,740	245,150	215,370	675,080	345,970	2,699,300	667,790	6,944,020

감사보고

- 회계분야 -

본 감사(회계분야 - 감사 장승완)는 원주환경운동연합 정관 제15조 3항에 의거, 2020년 2월 7일 16:00~17:00까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김경준 상근활동가(사무국장)로부터 2019년 수지계산서, 총계정원장 및 월별 재정보고서, 일계표, 자산 및 부채내역, 통장,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였고 상근활동가와 질의 및 응답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1. 회계서류와 통장 및 영수증 내역이 일치하고 수입과 지출이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2. 회원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2020년 2월 7일

감사(회계분야) 장 승 완 

본 감사(사업분야 - 감사 제현수)는 원주환경운동연합 정관 15조 3항에 의거, 2020년 2월 7일 16:00~17:00까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김경준 상근활동가(사무국장)로부터 2019년 사업성과 판단표, 사업결과 요약 보고서, 활동일지를 제출받아 검토하였고 상근활동가와 질의 및 응답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감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먼저 지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활동 해 온 원주환경운동연합 임직원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원주환경운동연합은 의미가 큰 성과를 남긴 한 해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활강경기장이었던 가리왕산 복원 문제와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지만, 가장 큰 산을 넘었고, 향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 분야에 있어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성과라 할 것입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아울러 지난 해 목표했던 강원환경운동연합이 모두의 노력으로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강원환경운동연합의 위상과 역할, 운영방식 등 앞으로의 진로는 더 진전된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함께 의지를 모아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회원확대 사업이 소정의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려되어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주요 환경 이슈에 대한 대응과 환경교육사업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면, 공원문제, 에너지 및 생활환경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공원일몰제 이후 도시 녹지 및 공원의 대체지 조성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 사업, 특히 도시 숲 모니터링 사업, 에너지 전환 운동, 생활환경 운동에 대한 시민 행동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 원주환경운동연합은 매우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매우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적지 않은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이 많습니다. 특히 적정한 인력과 예산, 사업수행 체계 등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현재로서는 계획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임직원 및 회원들의 참여와 협력, 지역사회 외부자원과의 연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사업 중에서는 환경사안에 대한 시민설문조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도시 환경 정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원주환경운동연합의 활동 방향을 잡아 나가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이자 시민단체로서의 자기고민이 필요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이제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원주환경운동연합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향후 원주환

경운동연합의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만들기 위해 초석을 쌓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일상에 심각하고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대응, 미세먼지 저감 및 적응대책, 플라스틱 오염 등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주환경운동연합이 올 한 해 지역사회 속에서 더욱 발전하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모든 회원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7일

사업감사 제 현 

2020년 활동계획(안)

중앙정부의 부동산 개발정책의 무차별 확대와 미진한 환경보전 정책은 국민의 지속가능한 삶에 이반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공원일몰제에 대해 민간자본 개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과 같은 지방정부의 난개발 몰입에 대해 최소한의 관리를 이행하지 못했고 설악산케이블카와 같은 독자적인 개발 사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결과로 나타났다.
원주시는 시민들의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적응대책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같은 공세적 대응의 부재 등은 시민의 생태적 지향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2020년은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제안과 캠페인활동과 정부의 난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창출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점활동 1. - 탈 미세먼지 활동으로 시민의 지속가능한 삶의 새 기운 추동

미세먼지 시민모니터링 활동 _ 특별사업

- 발생원별, 도시숲 및 주거지에 대한 미세먼지 시민모니터링
- 원주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시민모니터링의 강화

도시공원 확충을 위한 정책제안 활동 _ 특별사업

- 도시공원 확충을 위한 정책연구 및 캠페인 활동

중점활동 2. - 일상적인 환경활동의 강화로 시민의 환경의식 제고

일회용 플라스틱류 줄이기 캠페인 _ 특별사업

- 청년주도의 일회용플라스틱 사용 업소 모니터링
- 일회용 플라스틱류 줄이기 캠페인 및 정책제안사업

대학생-청년 환경을 상상하기 _ 특별사업

- 환경 분야 대학생 논문 공모 및 발표
- 청년 '환경을 상상하다' 캠페인

청소년 원주 사랑하기 캠페인 _ 특별사업

- 청소년 지역역사 바로세우기 캠페인
- 청소년 '원주를 자랑하다' 캠페인

환경사안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 특별사업

- 시민 설문조사 및 결과(정책 아젠다) 발표

주요활동 3. - 환경교육

쓰레기 감량 교육홍보사업

- 교안연구회 : 8회 → 10회
- 시민환경교육
- 자원순환교육
- 매립장 탐방

강원도교육청 환경단체 보조사업 - 생태환경학교

- 생태환경교실 - 13개학교 각 3회
- 생태탐방 - 학생 3회

자연환경해설사 과정

주요활동 4. - 강원환경운동연합 활성화

지역 주요활동(안인화력발전, 철탑반대대책위, 영랑호 등 석호보호) 참여

강원환경연합 조직 활성화 - 운영위원회 및 활동가 역량강화

2020년 강원도 주요기본계획 작성과정에 결합

- 자원순환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국토-생태계획

주요활동 5. - 지속사업

가리왕산의 완전복원을 위한 촉구활동

쓰레기 감량화 정책제안 및 캠페인 활동

생활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대처 활동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활동

국회의원 총선거 대응활동

미군기지 토양오염으로 인한 수목피해 및 생태현황도 작성 _ 특별사업

도시개발에 대한 지속가능한 가이드라인 작성 활동

- 정지뜰의 지속가능한 개발, 비오톱지도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민참여

회원확대사업

2020년 예산계획(안)

수 입				지 출				
항 목		2019 결산	2020	항 목		2019 결산	2020	근거
경상수익	회 비	47,311,000	52,350,000	인건비	활 동 비	44,950,000	45,600,000	활동비 인상
	일반사업수익	26,392,168	18,000,000	관 리 운영비	교 통 비	1,102,400	1,200,000	전년과 동일
	후 원 금	5,791,000	5,000,000		도서인쇄비	521,000	600,000	〃
	잡 수 익	58,176	81,473		문서발송비	43,180	120,000	〃
	차 입	2,000,000	0		수 용 비	523,500	400,000	〃
	소계	81,552,344	75,431,473		시설운영비	644,870	800,000	〃
과제수익	강원도교육청	9,304,217	9,000,000		임 차 료	6,840,000	6,840,000	57만원×12월
	쓰레기 감량화	25,144,967	25,000,000		제세공과금	5,556,810	5,600,000	〃
	소계	34,449,184	34,000,000		지급수수료	403,420	500,000	회비증가분 반영
					출 장 비	1,207,700	1,400,000	〃
					통 신 비	448,000	500,000	〃
					회 의 비	907,000	1,200,000	〃
				5대 보험	국 민 연 금	1,826,780	2,000,000	19년 12월분 기준
					건 강 보 험	2,440,900	2,400,000	〃
					고 용 보 험	463,220	500,000	〃
					산 재 보 험	512,020	550,000	〃
					장기요양보험	175,940	200,000	〃
				사업비	일반사업비	4,052,600	3,000,000	후원행사
					과제사업비	10,000	0	
					연대사업비	360,000	500,000	
					지역분담금	2,521,420	3,300,000	회비증가분 반영
				기금적립		3,047,654	150,000	퇴직적립금,밝음
				기타(차입,회비반환)		2,000,000	0	
				보조금	지출	33,678,360	34,000,000	
					사업비 잔액	765,710	0	
					이자	5,114	0	
소 계		116,013,528	109,431,473	소 계		115,007,598	111,360,000	
전년 이월금		922,597	1,928,527	2020년 이월금		1,928,527	0	
합 계		116,936,125	111,360,000	합 계		116,936,125	111,360,000	

* 회비 : 2020년 1월~12월까지 월 3~4명의 신규회원 가입분, 회원확대사업
* 일반사업수익 : 강원협의회 지원금(240만), 일자리지원금(480만), 자연환경해설사(200만), 기타(880만)
* 후원금 : 후원행사 등
* 상근활동가 활동비 : 사무국장(160만), 자연생태팀장(140만), 교육팀장(80만)

2019년 활동

기자회견문 모음

[기자회견문]

한국전력공사는
신울진~신가평 500HVDC 송전선로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산하라

-한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원칙을 위배했기에 결정된 어떠한 결과도 인정되지 않는다
-홍천과 횡성에 송전탑을 짓기로 예정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입지선정위원회 해산하라

신울진~신가평 500HVDC 송전선로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가 3월 28일 4번째 회의를 앞두고 있다.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송전선로를 특정 구간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원칙을 위배하였고 인위적인 위원회 운영을 자행한 것이 그간의 회의로 확인되었다.

한전의 입지선정위원회는 밀양이나 청도처럼 주민의 저항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송전선로의 입지를 확정하는 과정은 ①시작점과 끝점을 정하여 권역대(타원형)를 결정하고 ②의도된 경로로(홍천횡성) 결정하지 않기 위해서 최단거리 노선을 고수하지 않고 ③타원형 내의 모든 지자체의 관계자와 시민단체를 포함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 신울진~신가평 500HVDC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는 치악산의 오른쪽인 홍천과 횡성, 양평과 가평의 주민과 관계자로만 구성되었고, 치악산 왼쪽인 원주지역을 포함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무조건 홍천과 횡성으로 송전선로가 지나갈 수 밖에 없도록 처음부터 구성되었다.

연내에 송전선로 입지를 확정하고자 하는 한전의 의도가 반영된 회의 운영은 중단되어야 한다. 한전은 송전선로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평주민을 포함한 홍천과 횡성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이미 설득작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연내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게 되었다. 이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만장일치의 결정을 이루어서 향후 주민의 저항을 줄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배제되었기에 당연히 입지선정위원회는 해산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향후에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면 환경단체로서 함께할 것이다. 신울진~신가평 송전선로가 전자파의 영향이 적다고 해도 강원도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헤치는 결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주민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갈등의 요소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한전의 일방적인 주장만 관철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즉각적인 입지선정위원회의 해산을 요구한다.

1. 한전은 신울진~신가평 500HVDC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산하라.
2.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라
3.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는 한전관계자를 파면하고 즉각 사과하라

2019년 3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

[기자회견문]

신규 석탄발전 취소하고, 동해안~신가평 HVDC 추진 중단하라

ㅇ 강원도 동해안의 대규모 석탄발전 건설 사업과 동해안~ 신가평 HVDC(초고압 직류 장거리 송전망) 건설 사업은 비민주적이며 폭력적인 에너지 사업이다. 강릉시민행동, 경기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 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의 신규석탄발전 건설과 동해안~ 신가평 HVDC 사업 추진을 규탄하며, 사업 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ㅇ 동해안부터 시작하여 경기도 가평까지 연결될 HVDC 사업은 송전탑이 건설될 예정지역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한전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무시한채 신한울 핵발전소와 삼척, 강릉의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낼 계획만 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장거리 HVDC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으며, 대부분의 송전망이 교류로 연결되어있는 상황에서 직류 송전망을 함께 사용할 경우 사고 발생 등 기술적 안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ㅇ 한전이 송전탑 건설 예정지를 선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중이기도 하지만, 이미 선로를 정해두고 주민 설득 작업만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전은 보여주기식 사업인 입지선정위원회 진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ㅇ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익히 알려져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역시 문제다.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의하면, 연간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국내 배출량의 약 14~15%를 차지한다. 미세먼지로 온국민이 매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고통받으며 생활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추진은 납득할 수 없는 사업이다.

ㅇ 또한, 석탄화력발전소는 국지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이 충남과 인천 등의 경우를 통해 익히 알려진 바 있다. 충남 당진 교로리의 경우 석탄발전소와 송전탑이 건설된 후 200가구 남짓 모여 사는 마을에서 24명의 암환자가 발생했다. 그 중 13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언론에도 여러차례 보도 되었듯, 당진과 영흥에서 발견되는 경제적 피해가 크다. 애써 키운 배추 속에 석탄 가루가 쌓여 버려야 하는 등의 경제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ㅇ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숙제를 안고있는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탈석탄을 해야할 때이다. 대규모 발전소와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 이야기 되고 있는 지금, 산업부와 한전은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23일

강릉시민행동, 경기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범시민연대,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 환경운동연합

[논평]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에 관한 입장

지난 30일, 설악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를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사업추진을 점검하겠다고 말한 지 3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불가피한 사유를 근거로 두고 국립공원 관통에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다. 보다 정확히는 나름 지켜왔던 법과 원칙보다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길을 선택했다고 평가한다.

거두절미하고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가 건설되면 강원도 화천, 양구, 인제 등 민북지역은 망한다. 이른바 빨대효과(straw effect)가 발생할 것이다. 지역 경제는 대도시인 속초로 종속되고 각 지역은 경제 독자성을 상실할 것이 자명하다. 또한, 강원권에는 주요 교통망으로 서울~양양고속도로와 강릉 KTX고속철도, 제2영동권고속도로와 양양공항, 미시령도로가 이미 건설되어 있다. 추가 교통망을 건설한들 중복투자와 수요한계, 교통망의 경합으로 인한 분산영향으로 연쇄적자가 발생할 것도 분명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장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 20년 간 세 차례 실시한 예비타당성보고서에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현재에 이르러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가 미시령도로 건설로 민자도로운영사에 지급 할 혈세만 4,300억 원이고, 노선이 건설되고 나서 지역패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주변지역 경제는 망해가고 있다. 양양공항도 마찬가지다. 연간 200만 명을 예상했지만, 매년 적자에 실제 이용객은 3만 7천여 명에 불과하다. 모두 쪽박이 났다. 문재인 정부는 고속화철도 추진이 강원도에 미칠 심각한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 총선만 생각하고, 훗날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토건세력과 이에 빌붙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동서고속화철도는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태우 후보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사업이다. 세 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됐지만, 타당성이 없어 좌초되었다. 그러다가 2016년 박근혜의 말 한마디로 재추진되었고, 당시 기획재정부는 경제성 0인 사업을 하루만에 재승인한바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MB만 경제성이 없다고 두 번이나 사업을 걷어찼었다. 돌이켜보면, 대통령들의 말 한마디로 사업추진이 좌지우지되어 왔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아쉽다. 그 의도가 어떠했든 간에 사심만이 가득한 세력들에게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흑산공항 심의는 일방적으로 중단되고,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GTX-A 사업이 허가됐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 문제는 환경적폐로 규정되었음에도 해결책 마련 없이 방관하고 있다.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을 통과시키면서 갈등의 짐을 국립공원위원회로 던져버렸다. 현안해결능력이 부재한 문재인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라고 평가받는 이유이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여·야할 것 없는 정치권의 총공세에도 법과 원칙에 맞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했고 정권은 그 책임성을 보장해줬어야 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당리당략에만 힘을 실어줬고,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증할 기회를 무력화 시켰다. 사업비로 투입되는 국비 2조2천억 원은 세금낭비로, 사후 손실비용은 고스란히 강원도가 짊어져야 할 것이 뻔 한 상황이다. 복합적으로 발생할 악영향은 예측하기도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그 불필요한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긴 것이다. 소통과 정의로움을 내세웠던 문제인 정부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실망을 넘어 실소만 나올 뿐이다. 이젠 그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어 보인다.

2019년 5월 1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한국환경회의

[성명서]

원주지방환경청은 화학물질 대기 배출 실태조사를 엄중히 실시하라

최근 여수 국가산단의 주소 사업장의 대기 배출 조작 실태가 드러났다. LG화학, 한화케미칼을 포함한 235개의 사업장들이 대행업체와 짜고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조사 결과 확인된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 관할 내에 있는 화학물질 취급업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해당 업체)는 22개 업종 174개소로 415종의 화학물질 중 1종 이상을 연간 1톤 또는 10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이다. 소규모 업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업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화학물질의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업체들은 원료 또는 제품 생산에 사용된 화학물질 중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된 양 등을 작성하여 4월 30일까지 제출한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가 된 '자가 측정'을 통한 제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실정이 되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해당업체는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 배출 업체의 배출량과 아래 사항의 배출 실태 등을 엄중히 검증하고, 몇 년 동안의 허위 여부를 직접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별 연간 취급(제조.사용)량 ▷폐수.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된 폐수.폐기물 중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양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발암성.생식독성.유전독성을 가진 화학물질, 온실가스

또한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업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연간 39만 톤으로 발표 했지만 공정 과정에서 발생되었지만 누락된 배출량이 무려 11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질소산화물의 대부분이 미세먼지 개선 대책에 아예 빠져 관리의 사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시설은 굴뚝자동측정장치(TMS) 부착을 면제받고 자가 측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없는 관리 사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심지어 TMS 정보 관리마저 소홀해 전체적인 수치 역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화학물질과 더불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SO_2, CO, NOx, PM-10, PM-2.5 등) 배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역시 진행하여야 한다.

원주환경운동연합은 위와 같은 조치가 시급히 이뤄지길 촉구하며 화학물질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늘 지속적인 감시와 지역의 조례 제정 촉구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2019년 5월 7일

원주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미세먼지의 주범, 안인 석탄화력발전을 멈춰라

청정한 자연과 공기를 자랑하는 강원도 강릉시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강릉시민들은 2016년 9월에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발족하고 안인의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와 신규 안인 석탄화력발전의 중단을 요구해왔다.

한국남동발전이 영동1호기를 폐쇄하고 영동2호기의 연료를 우드팰릿으로 변경한다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이 강릉시와 강원도 영동지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안인에 건설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지면 미세먼지의 발생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강릉 안인에 건설중인 신규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다. 생산될 전기를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기 때문에 발생될 송전철탑으로 인해서 국토가 파괴되고 주민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며, 주민들의 어업권피해와 해양생태계의 파괴 등 피해만을 양산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다.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의하면, 연간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국내 배출량의 약 14~1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는 국지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충청남도 당진 석문면 교로리의 경우 석탄발전소와 송전탑이 건설된 후 200가구 남짓 모여사는 마을에서 24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13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언론에도 여러차례 보도되었듯 당진과 영흥에서 발견되는, 애써 키운 배추속에 석탄가루가 쌓여서 버려야 하는 등의 경제적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강원지역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반대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이는 강릉 안인과 추가 계획중인 삼척의 석탄화력발전, 쓰레기 고형연료(SRF) 발전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활동을 할 것이다. 이는 미세먼지의 발생,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국토의 파괴,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를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 우리의 요구 -

미세먼지의 주범, 안인 석탄화력발전을 멈춰라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라

2019년 5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강릉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

[보도자료]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끝장 투쟁 선언

-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끝장 투쟁 선언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종지부를 찍어라

• 일시 : 2019년 5월 31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정문 앞
• 내용:
- 끝장 투쟁 선언식
- 퍼포먼스(에드벌룬 고공 피켓팅) 등

○ 지난 5월 16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본안 최종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절차 상 사업추진여부를 결정짓는 최종단계에 와있음을 뜻합니다. 원주청은 5월 31일(금)에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 정부는 2010년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해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내 삭도설치 허용길이를 5km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9년 간,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을 두고 온갖 소모적인 갈등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가늠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 작년 3월,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업추진 전반에 부정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접수 시 부동의 처리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서 접수로 그 권고사항은 즉각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주민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그동안의 갈등과 논란이 종식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입장을 배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보도자료]

2019년 08월 08일 | 총 2매 |

보 도 자 료 및 취 재 요 청

□ 최근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과 관련된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야생조류들이 건물의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 매년 800만 마리 이상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원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부터 국립생태원 김영준박사와 미팅하여, 좁게는 원주, 넓게는 강원도의 '조류충돌 현황자료'를 만드는 것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조류충돌 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모니터단은 누구나 가능, 인원도 제한되지 않으며, 모집기한은 없습니다.

□ 스마트폰 어플인 '네이처링'을 주로 사용하여 진행되고, 모니터링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모니터링 활동량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도 부여해 드립니다.

□ 조류충돌과 관련된 강의와 모니터링 방법을 알려주는 첫 모임은 8월 20일(화) 19시, 원주환경운동연합(돌터2길 11, 2층)에서 진행됩니다.

□ 자세한 내용 및 모집 요강은 아래 첨부된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주환경연합 조류충돌 모니터단 모집 ☆★

야생조류들이 건물의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 매년 800만 마리 이상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환경운동연합이 국립생태원(담당:김영준박사)과 논의하여 조류충돌 모니터링을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주로 사용하여 진행되고, 모니터링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원주와 강원도의 조류충돌 사례를 모으기 위한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대상: 누구나(가족, 학생, 어른 모두모두!)
-모집인원: 제한없음.
-모집기간: 수시
-활동기간: 2019년 8월~종료 시(2020년 실천단으로 변경 예정)
-활동내용:
① 온라인(네이처링)을 통한 조류충돌 모니터링
② 오프라인 모임(모니터링 방법 교육, 조류충돌 강의, 활동 공유 등)
** 첫모임: 2019년 8월 20일(화) 19시, 원주환경운동연합(돌터2길 11, 2층)
-모니터링 방법과 조류충돌 강의는 모니터단이 모이면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니 첫 모임에 못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 특례사항: 원하시는 경우 모니터링 활동량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을 등록해 드립니다.(1365)
-신청방법: 링크를 통한 신청
https://forms.gle/kSSKN7z32B5rWK9t6

-문의: 원주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팀장 김은지 033-732-1102

[기자회견문]

강원도를 관통하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한국전력공사는 동해안~신가평 500,000V 직류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경과대역을 보면 경상북도의 울진군과 봉화군, 강원도의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횡성군, 홍천군, 경기도의 양평군과 가평군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 10개 시.군을 관통하고 400여개의 송전철탑을 건설하는 반주민적이고 반환경적이며 국토파괴사업이다.

주민모르게, 한전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일방적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즉각 해산해야 한다.
한전은 밀양사태이후 송전선로 사업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주민대표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송전철탑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한전의 발표는 말뿐이었다. 동부구간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3년 가까이 흘렀지만 주민들은 입지가 선정되고 주민의견 수렴한다고 해서 입지선정위원이 누군인지, 우리동네에 송전철탑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한전이 얘기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입지선정위원회란 것인가?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는 백지화되는 것이 마땅하다.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철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울1, 2호기의 전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765kV 송전철탑으로 송전하면 된다. 강릉에서 건설되고 있는 화력발전소 전기는 독자적인 송전계통으로 송전한다고 한다. 신한울 3,4 호기는 대통령이 백지화선언을 했기에, 동해안에서 송전철탑을 새로 만들어서 보낼 전기가 없다. 송전할 전기가 없는 웬 송전철탑이란 말인가? 그래서 동해안에서 신가평까지의 500kV HVDC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한전이 필요도 없는 새로운 송전철탑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신한울 3,4호기를 가동하여 우리에게 후쿠시마 원전의 악몽을 주겠다는 시도이다.

문제는 또 있다. 애초 한전은 경기도 북부지역에 전기를 공급한다고 했다가 민자발전소가 건설되어 전기가 필요없게 되었다고 하여 여주.이천 등 신경기 등으로 종착지를 바꿨다가 경기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깐 가평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송전철탑의 종착지가 왔다갔다 흔들린다는 것은 전기의 수요처가 없다는 말이다. 결국 한전은 수요처도 없는 전기를 송전하고자 강원도민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한전의 직류송전방식(HVDC)은 검증되지 않았다.

한전은 초장거리 500kV HVDC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으며 대부분의 송전망이 교류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류 송전방식을 함께 사용할 경우 사고로 인한 대정전위험 등 기술적 안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산자부에서도 기술검증을 우선하라고 한전에 요구하였지만 한전은 무시하고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의 안전을 볼모로 자사의 이익만 꾀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의 강원도민을 우롱하고 무시는 태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9월 6일, 한전은 동부구간의 14차 마지막 입지선정위원회가 피해주민에 의해 저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의장소를 두 개를 정해서 한곳으로 주민들을 유도해서 한전직원을 동원하여 마치 이곳에서 회의 하는 것으로 해놓고 다른 회의장소를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작태를 보였다. 이것이 대한민국 공기업인 한전이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현재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 강원도지역의 주민들은 강원도송전철탑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
거짓된 송전계획과 주민을 조롱하는 한전의 작태를 투쟁으로 분쇄할 것이다. 또한 밀양과 청도를 경험하고도 우리 사회 최대의 갈등현안인 송전철탑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한전에 대해 올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있는 정부도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강원도민의 피해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 강원도지사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강원도 송전철탑반대대책위원회는 송전철탑을 반대하는 강원도지사,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함께 투쟁할 것을 요구하며, 500kV 초고압송전철탑이 백지화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2019년 9월 18일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논평]

원주에너지의 SRF열병합발전소 부속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원주시와 원주시민을 우롱한 건축허가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원주에너지가 지난 9월 16일, 원주시에 문막화훼단지 SRF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발전설비가 포함된 본 건물이 아니라 경비동과 펌프동 등 부속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되어 신재생에너지의 가중치(REC) 적용을 보전받고자 10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기위한 꼼수이다.

원주에너지의 꼼수는 비상식적이고 원주시의 행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작태를 보였다. 10월 1일 이전에 착공해야 가중치를 인정받는다고 하니 발전설비와 전혀 상관없는 빈약한 건물 몇 개를 짓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니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를 적용받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사에 의하면, 원주에너지는 SRF열병합발전소가 위치할 반계산업단지내의 예정지에 대한 토지매매 및 사용 계약을 안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통합환경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토지매매 및 사용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한다. 원주에너지는 토지사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건축허가 심의를 신청한 것이다. 원주시는 신청서류를 즉각 반려해야 한다.

또한 김기선 국회의원실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도 10월 1일 이전에 개정하게 된다한다. 이 내용에 의하면 '착공'이라는 의미는 착공예정일의 적시나 실제적인 공사에 돌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원주시는 원주에너지의 건축허가 신청 서류를 20개 부서에서 관련법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남의 땅에 건축을 하겠다는, 토지매매 및 사용계약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도 갖추지 않은 서류를 즉각 반려하기는 커녕 관련부서 검토를 하고 있다니 기가막힐 일이다.

원주에너지의 건축허가 신청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를 받겠다는 의도가 명확한 만큼 원주시는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 획득 유무 및 부속시설이 발전설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명확한 법적검토와 상위기관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강원도를 관통하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한국전력공사는 동해안~신가평 500kV 직류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경과대역을 보면 경상북도의 울진군과 봉화군, 강원도의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횡성군, 홍천군, 경기도의 양평군과 가평군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10개 시.군을 관통하면서 400여개의 송전철탑을 건설하는 반환경적이고 반주민적인 국토파괴사업이다.

한전은 밀양사태이후 송전선로 사업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주민대표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송전철탑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한전의 발표는 말뿐이었다. 동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는 3년 가까이 운영되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경과대역이 결정된 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우리동네로 송전철탑이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입지선정위원이 누군지 알게되는 기가막힌 일이 발생되었다. 이것이 한전이 얘기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는 입지선정 과정이란 말인가?

한전의 강원도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9월 6일, 한전은 동부구간의 마지막 입지선정위원회가 피해주민에 의해 저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2개의 회의장소를 사전에 결정하고 한전직원을 동원하여 회의하는 것으로 꾸며 주민을 유도해놓고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하던 것이 대책위가 저지시켰다. 투명하게 입지를 결정하겠다는 한전의 현재모습이다.

한전의 꼼수, 입지선정위원회를 동부와 서부 2개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한전의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에 의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시작점에서 종점까지 1개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2개로 나누어서 스스로의 시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는 한전의 꼼수로 자기마음대로 입지구간을 선정하기 위해 이미 선정된 개폐소 부지를 변전소로 활용하기 위해 평창 진조리를 대상지로 포함하기 위해서이다. 한전의 시행기준에 의하면 시점과 종점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타원형(횡축은 종축의 2/3)에 포함되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주민대표자를 입지선정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한전이 발표한 경과대역을 보면 울진과 봉화, 태백과 정선으로 연결되는 기이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평창 진조리를 변전소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꼼수인 것이다. (참고1)

울진에서 보낼 전기도 없고, 사용할 사람도 없는 500kV HVDC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철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울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울1, 2호기의 전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765kV 송전철탑으로 송전하면 된다. 강릉에서 건설되고 있는 화력발전소 전기는

독자적인 송전계통으로 송전한다. 신한울 3,4 호기는 대통령이 백지화선언을 했기에, 울진에서 송전철탑을 새로 만들어서 보낼 전기가 없다. 송전할 전기가 없는데 웬 송전철탑이란 말인가? 한전이 필요도 없는 새로운 송전철탑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신한울 3,4호기를 가동하여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도인 것이며, 우리에게 후쿠시마 원전의 악몽을 주겠다는 시도이다.
문제는 또 있다. 애초 한전은 경기도 북부지역에 전기를 공급한다고 했다가 민자발전소가 건설되어 전기가 필요없게 되자 여주.이천 등 신경기 등으로 종착지를 바꿨다가 경기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깐 다시 가평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송전철탑의 종착지가 왔다갔다 흔들린다는 것은 전기의 수요처가 없다는 말이다. 결국 한전은 수요처도 없는 전기를 송전하고자 강원도민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한전과 입지선정위원회 일방적으로 결정된 송전철탑 경과대역
2년 먼저 구성된 동부구간이 경과대역을 결정할 때까지 서부구간은 몇차례 운영되지 못했다. 결국 동부구간 경과대역과 꿰맞추기 위하여 서부구간은 횡성군과 홍천군 일색으로 늦게 구성하는 꼼수를 부렸다. 결국 횡성군과 홍천군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였고 이는 평창, 정선, 영월 주민들과 함께 강원도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우리는 동부구간의 경과대역이 결정되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동부구간의 종점이 평창군 진조리까지 경과대역이 결정되면 서부구간의 주민들은 자기의사와 상관없이 횡성과 홍천을 경유하는 노선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동부구간의 경과대역이 영월 동강의 생태계보전지역을 관통한다는 점이다.

강원도민 무시하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강원도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는 강원도내 시군의 대책위를 기반으로 출발하였고 지금은 횡성 청일면 대책위와 공근면 대책위 등 읍면 단위의 대책위가 결성되면서 확대되고 있다. 강원도민의 힘찬 투쟁이 2021년까지 예정되었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2025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잠정 연기하는 결과를 획득하였다.
우리는 정부와 한전에 요구한다. 울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기존의 송배전계통으로 보낼 수 있는지의 여부, 수도권 어디에서 사용하는 전기인지를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송전선로 사업을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강원도민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즉각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

2019년 10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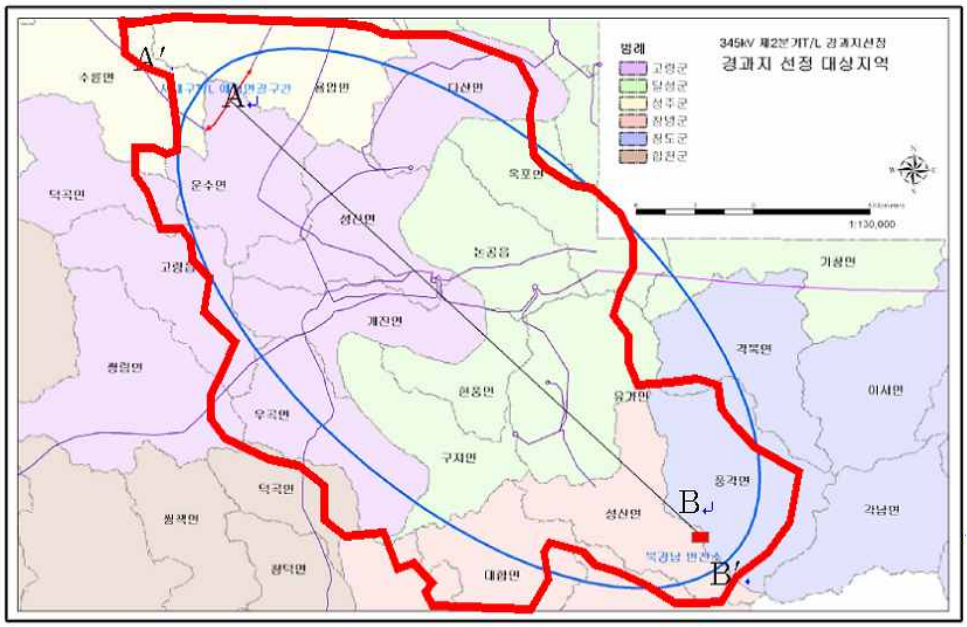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송전탑네트워크

[참고1]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17. 2. 28)

2.2 사업대상지역 결정

건설예정 송전선로의 시점(A)과 종점(B)을 직선(AB)으로 연결하고 그 직선의 양끝을 각 각 1km씩 연장하였을때 (A,B), 그 연장선(A‘,B’)을 장축으로 하는 타원형(횡축은 중축의 2/3)에 해당되는 지역 중 전체 읍.면 면적의 30% 이상이 포함된 지역은 대상지역에 포함시키고, 시점과 종점이 포함된 읍.면은 30%이하가 포함된 지역이라도 반드시 대상지역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또한 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이라도 자연지형으로 인해 시점에서 송전선로가 연결될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법적 제한요건이 있는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을 경우에는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림 2] 대상지역 범위



[보도자료]

2019년 11월 01일 | 총 2매 |

보 도 자 료 및 취 재 요 청

□ 원주환경연합이 2019년 쓰레기 감량화 교육·홍보 프로그램 사업(원주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세부적으로 학교나 유치원에서 교재와 놀이를 통해 쓰레기에 대해 배우는 <자원순환학교>와 원주시 폐기물 종합처리단지(매립장)를 아이들이 견학하는 <현장견학>, 시민들이 쓰레기와 환경에 대해 배우는 <시민자원순환교육>로 이뤄져 있습니다. 매해 신청하는 학교가 늘어서 공고 후 3일 이내에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 그 중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자원순환교육>이 11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원주시 매립장을 탑방하는 프로그램은 11월 16일(토)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 원주의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배우고, 플라스틱이 주는 문제점들에게 대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헌책을 활용하여 팝업북을 만드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실습에 필요한 책은 원주환경연합에서 제공합니다.
쓰레기와 더불어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서울에서 강사님을 모셔 들어볼 예정입니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강의는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의 저자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님이 진행합니다.

□ 교육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모든 교육에 참석하지 않고 원하는 교육 수강만 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모집 요강은 아래 첨부된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자원순환교육

–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강좌 –

주제	일시	강사
원주의 쓰레기들	11월 5일(화) 19시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11월 12일(화) 19시	강신호 (대안에너지 기술연구소)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탐방	11월 16일(토) 10시	미정
기후변화와 음식물쓰레기	11월 19일(화) 19시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헌책을 활용한 리사이클링	11월 26일(화) 19시	전재란 (팝업스토리 대표)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12월 3일(화) 19시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 문의: 033-732-1102 * 신청: bit.ly/시민자원순환교육 * 후원: 원주시

[창립선언문]

강원환경운동연합 창립선언문

강원도의 수려한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생명가치를 우리사회의 기준으로 만들기 위해 출발한 환경단체의 세월이 20년이 넘었다. 개발과 훼손은 폭력적으로 조직화되고 있지만 이에 저항하는 세력의 영향력은 더디기만 하다. 지금도 도처에서는 환경을, 자연을,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힘겨운 저항이 이어지고 있고 개발세력에 무방비로 안방을 내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마저 많다.

원칙도 없고 합의도 없는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개발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강원도는 누더기가 되고 있다. 5개의 보호지역이 중첩되어 있음에도 온갖 이유를 붙여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훼손해서 동계올림픽을 치루고 생태복원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산악관광과 고속철도를 통해 백두대간을 훼손하고 있으며 강릉과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 영랑호와 같은 석호를 훼손하고 필요하지도 않는 초고압 송전철탑을 추진하는 개발세력이 끝없는 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혼자의 힘으로 환경을 지켜내고 개발에 저항하기는 힘들다. 생명가치를 강원도의 중심으로 삼기 위해서는 여럿이 힘을 모아야 한다. 강원도의 환경을 보전하고자 환경단체의 힘을 결집하고자 여러번 시도했고, 무산되었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우리는 오늘 강원환경운동연합을 다시 시작하면서 생명가치.생태가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일보의 후퇴도 없을 것을 다짐한다. 생명가치.생태가가치의 중심가치화는 자본의 확대를 위해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에 저항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또한 자연과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생명가치와 생태가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공부하고 건강한 비판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제시하고 대안을 창출하기 위한 꾸준한 자기노력을 다짐한다.

강원환경운동연합은 강원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초석이 되어야 한다. 생명가치와 생태가치의 중심가치화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정당,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행동하는 플랫폼이 될 것을 다짐한다.

2019년 12월 3일

강원환경운동연합 창립 대의원총회 참가자 일동

[논평]

굴종의 외교, 좋아하기에는 슬픈 현실인 캠프롱-캠프이글 반환

원주시민은 과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군기지 토양오염에 대해서 격렬한 저항을 통해 미군의 사과를 받아냈고 미군기지의 반환까지 획득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원주시정은 그러한 시민의 투쟁을 시궁창에 던져버리고야 말았다.

어제(12월 11일) 정부는 캠프-롱, 캠프-이글을 포함한 미군기지 4개소가 즉시반환 된다고 발표하였다. 반환되는 미군기지 4개소에 대한 토양오염 복원비용은 1,1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도 한다. 원주에 위치한 2개의 미군기지를 포함한 4개소의 미군기지가 토양오염이 심각할 정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소요되는 복원비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먼저 복원한 후 책임소재를 나중에 판단하겠다는 것은 '제발 기지만 돌려 달라. 책임은 대한민국이 지겠다,'는 표현과 다를 것이 없다. 너무나 굴욕적이며 이는 굴종의 외교임이 틀림없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해당지역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선반환에 대한 민원" 이라는 정부의 발표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환경주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개발을 요구하는 일부 집단의 민원만을 반영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떼'를 쓰며 반영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어이없는 국가행정일 뿐이다.

원주시장은 미군기지의 선반환을 위해서 정부를 방문한 횟수가 100회를 넘는다고 말했다. 100회가 넘는 동안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었기에 이렇게 어이없는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또한 선반환을 요구했던 일부 집단에게 주권의식이 있기는 한 것인지 조차 의문이 든다.
이번 행동의 결과는 남아있는 22개의 미군기지에 반환절차에 반영될 것이고 향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반영될 것이 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주권, 나아가 주권조차도 그 미래는 보이지 않게 암담하다.

2019년 12월 12일

원주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 중단하고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지난 9월, 강원도민은 한전의 500HVDC 송전선로 동부구간 13차 입지선정위원회를 무산시키고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주민들의 재산가치권의 하락, 생활권과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송전철탑의 위치와 송전선로 경과대역의 결정이 피해지역 주민 주민도 모르게 선정된 입지선정위원이, 또한 해당지역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선정한 송전선로 경과대역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동부구간에 이어 서부구간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오늘 개최된다. 오늘의 입지선정위원회가 강원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정식회의가 아닌 간담회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전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회의이다. 서부구간의 대부분의 입지선정위원 또한 동부구간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도 배제된 상황에서 선택되었고 강원도와 상관없는 경기도 사람들이 강원지역의 송전탑 위치를 선정하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송전철탑이 지나가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과 지방의원, 강원도지사까지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강원지역 주민들은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항하고 있다. 한전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과대역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선정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주민의 의사를 완벽히 배제하고 한전의 일방적이고 예정된 경과대역을 확인하는 들러리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전은 입지선정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선정했는지 밝히면 될 것이다. 또한 한전은 입지선정위원 중에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의견과 행동을 하는 선정위원들을 임의로 배제하고 자신들의 이해에 복무하는 사람들만으로 동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를 진행했음이 확인되었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첫째, 한전이 주민들 모르게 일방적으로 선정한 입지선정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논의결과를 당연히 인정할 수 없다. 둘째, 한전은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겠다고 하는데, 수도권에 진정으로 전기가 부족한 지 한전이 아닌, 별도의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서 우리에게 입증시켜야 한다. 또한 공론화기구의 논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입지선정위원회는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

강원도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강원도지사까지 나서서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한전에게 책임을 미루고 수수방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한다. 산자부는 주민이 요구하는, 주민이 배제된 채 한전 일방적으로 입지선정위원을 구성한 문제와 수도권이 전기가 부족한 여부에 대해서 공론화기구를 통해 밝혀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즉각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산자부 장관을 만나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한전에 경고한다. 결정되지도 않은 송전선로 경과대역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민들을 몰래 만나 돈으로 현혹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강원도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와 피해주민의 행동은 강원도 여타의 민원과는 다르다. 주민의 생존권과 생활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주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전의 입지선정위원회 결과가 백지화되고 공론화기구를 통해서 수도권의 전기수요가 명확히 입증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2019년 12월 26일

강원도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

회원명부

2020년 2월 11일 18시 기준 308명

강성태 강신범 강영태 강윤숙 강은숙 강철규 강철식 강효덕 계규민 계서연 계주홍
고미영 고복만 고유건 고유민 고정섭 고준희 공제욱 곽도영 국태호 권태원 권혁미
김갑태 김경숙 김경준 김길선 김길중 김남형 김동기 김동식 김동열 김동원 김동혁
김면래 김명숙 김문영 김미자 김범중 김법성 김봉일 김상복 김선기 김선동 김선희
김세현 김소연 김소영 김수경 김순희 김영길 김영무 김영미 김영재 김영주 김영태
김영하 김용우 김원철 김유환 김윤미 김은주 김은지 김응석 김익록 김익주 김인호
김재용 김정삼 김종남 김주원 김주택 김준연 김중배 김진열 김학배 김한수 김해경
김현자 김혜영 김혜정 김흥수 남수자 남원식 남은애 노경미 노병철 도서출판이음
류관희 문규덕 문응기 민경성 민병승 민영선 박경희 박기군 박대일 박덕래 박병섭
박성룡 박성수 박성현 박애종 박양욱 박영길 박우순 박종만 박종현 박준길 박철우
방정균 배병호 배준형 배찬두 백귀헌 부상익 서연남 서용찬 석유진 석형근 성락철
손병용 신기원 신동숙 신민환 신병식 신성주 신영식 신영철 신윤근 신혜숙 심상돈
안관수 안영숙 안종남 안추옥 안태수 안현주 양미경 엄광호 엄안섭 엄영철 엄태원
여병현 여인수 오영환 오정윤 오제순 왕영희 용정순 용한수 원규희 원노연 원동진
원상호 원성문 원희동 유기형 유병헌 유안진 유종호 윤승호 윤용호 윤원상 이광순
이광희 이광희 이기선 이남수 이동란 이동희 이명신 이명재 이무춘 이미숙 이미숙
이빈호 이상용 이상훈 이선화 이성용 이성일 이소정 이승준 이시근 이연서 이연택
이영애 이영화 이용훈 이우세 이원겸 이유민 이은정 이은희 이인숙 이재순 이재영
이재인 이재홍 이재희 이정북 이정숙 이종붕 이 준 이준섭 이지민 이지원 이지호
이진술 이진우 이진하 이진희 이창열 이창재 이창호 이창환 이태구 이태희 이한진
이현주 이현직 이형표 이혜숙 이호용 이호준 이효섭 임동이 임민희 임영수 임영희
임종태 임종호 임주열 임창숙 장금옥 장기향 장동영 장봉근 장소정 장승완 장연옥
장영민 장춘학 장택수 장화순 전보경 전부종 전성구 전수용 전숙희 전인귀 전재란
전정선 전중욱 정규원 정동우 정명자 정영주 정원옥 정일선 정창기 정향화 제현수
조석곤 조윤주 조은자 조현숙 조호순 지석봉 지은희 지준근 진광장 진혜영 차경익
차민정 차봉익 차상민 차수련 차영배 채연희 최경희 최기식 최세일 최영희 최종천
최준길 최혁진 최현택 최흥식 한경호 한광덕 한은경 한재현 한지윤 한호연 함점순
현 각 홍동표 홍성태 환경오염피해공동대책위원회 황도경 황도근 황범순 황영호
황인수 황정욱 황지숙 황형숙

원주환경운동연합 정관

--- 1993. 9. 21 제 정
--- 1994. 4. 23 1차개정
--- 1995. 3. 30 2차개정
--- 1996. 3. 21 3차개정
--- 1998. 2. 19 4차개정
--- 2001. 1. 20 5차개정
--- 2002. 2. 2 6차개정
--- 2003. 1. 28 7차개정
--- 2005. 1. 27 8차개정
--- 2006. 2. 8 9차개정
--- 2007. 2. 13 10차개정
--- 2008. 2. 11 11차개정
--- 2009. 2. 13 12차개정
--- 2010. 1. 28 13차개정
--- 2013. 2. 5 14차개정
--- 2017. 1. 19 15차개정
--- 2018. 3. 22 16차개정
--- 2019. 1. 29 17차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06.2.8 개정**)**

이 모임은 원주환경운동연합(약칭 원주환경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WONJU(약칭 KFEM WONJU)이라 한다.

제2조 (목적, 07.2.13 개정**)**

원주환경연합은 생명평화참여를 중심가치로 삼아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상, 06.2.8 개정**)**

원주환경연합은 환경연합의 원주지역 조직이다.

제4조 (소재)

원주환경연합의 사무실은 원주에 둔다.

제5조 (사업, 07.2.13 개정**)**

원주환경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2)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3)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제시 사업
5) 환경피해지역과 지역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제반활동
6)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사업
7)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들과의 연대사업
8) 기타 환경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6조 (정당 및 정치활동 배제, 09.02.13 개정, 13.02.05 개정**)**

공동대표, 사무국장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상실, 06.2.8 개정, 13.02.05 개정**)**

1) 원주환경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입 즉시 강원환경운동연합 및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2019.01.29 개정)
2)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3) 회원은 연 3회 미만 회비 납부 시 회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4) 후원회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입하고 활동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8조 (가입, 09.02.13 개정, 13.02.05 개정**)**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원주환경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1회 회비와 함께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후원회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구성하는 가입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 (권리와 의무, 05.1.27, 06.2.8 개정, 13.02.05 개정**)**

1)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원주환경연합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 원주환경연합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3) 원주환경연합 내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단 후원회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제10조 (상벌, 09.02.13 개정**)**

1) 원주환경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원주환경연합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조 직

제11조 (총회, 08.02.11, 09.2.13 개정**)**

1) 총회는 회원 전체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 성원은 제적회원 1/10 이상의 출석과 위임을 포함한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 (총회의 소집, 09.02.13 개정**)**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회원 1/10 이상의 요청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06.2.8, 09.02.13 개정**)**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공동대표의 선출
3) 운영위원, 감사의 선출
4) 결원 운영위원 및 감사의 승인
5) 상근활동가의 임면의 승인
6) 감사, 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7) 원주환경연합의 해산의결. 단 이 경우 참석회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8) 기타 중요 안건의 심의 의결

제14조 (공동대표, 09.02.13 신설**)**

1)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공동대표간의 소통과 협의를 위하여 공동대표단 회의를 둘 수 있다.

~~4) 공동대표 중 1인은 운영위원장을 겸한다.(삭제, 19.01.29)~~

5) 상근활동가의 임면

6) 공동대표는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정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후보 선정의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7) 공동대표의 유고시,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잔여임기 동안 대행한다.(18.03.22 신설)

제15조 (감사, 09.02.13 신설**)**

1) 원주환경연합의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이다.

2) 보선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운영위원과 겸직할 수 없다.

3) 감사는 조직운영, 예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09.02.13 신설, 13.02.05 개정**)**

운영위원회는 원주환경연합 의결 및 집행기구로 구성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선출직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을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3) 운영위원의 자격은 1년 이상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자로서 2명 이상 회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4) 운영위원은 추천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원모임은 1명 이상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한다. (17.01.19 개정)

5)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7.01.19 개정)

6)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단, 상근활동가는 제외한다. (10.01.28 개정, 18.03.22 개정, 19.01.29 개정)

제17조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09.02.13 신설**)**

1) 회원가입 및 탈퇴의 승인

2) 추천위원회의 구성

3) 결원 운영위원, 감사의 선임

4) 상근활동가의 추천

5) 예산, 결산, 활동의 심의 및 집행

6) 회원모임의 결성승인 및 해산의 결정

7) 총회 상정의안 심의

제18조 (추천위원회, 09.02.13 신설**)**

1)원주환경연합은 공동대표, 운영위원, 감사의 선출을 위해 10인 이내의 추천위원회를 총회 6월

전에 구성하여 총회까지 운영되며, 추천위원회의 운영은 세칙으로 정한다.

2)공동대표, 운영위원,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는 총회준비위원회가 되며 세부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 (고문 및 지도위원, 07.2.13, 08.02.11, 09.2.13 개정**)**

1) 원주환경연합은 지역사회에 덕망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고문과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2) 원주환경연합은 연 2회 이상 고문, 지도위원회 정기모임을 통해 활동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 (전문위원회, 07.2.13, 08.02.11, 09.2.13 개정**)**

1) 환경운동 및 조직발전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들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2) 전문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정기모임 및 임시모임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정책 연구결과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상근활동가, 09.02.13 신설, 13.02.05 개정**)**

원주환경연합은 회원간 소통과 본회의 운영 및 사업집행의 지원을 위하여 상근활동가를 둔다.

1) 상근활동가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공동대표가 임면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2) 3년 이상의 상근활동가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3) 활동가에 대한 처우와 임무, 직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22조 (회원모임, 08.02.11, 09.2.13, 17.01.19 개정**)**

원주환경연합은 회원의 자발적인 환경운동의 참여를 위해 회원모임을 결성할 수 있다.

1) 회원모임은 원주환경연합 회원으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운영위원회에 승인된 회원모임은 1인 이상의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23조 (의사결정, 06.2.8 개정**)**

당 회계연도에 월 회비를 6회 이상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제24조 (사업단의 설치, 13.02.05 신설**)**

원주환경운동연합의 목적을 위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단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로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24조 (회계년도)

원주환경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5조 (재정운영, 09.02.13 개정**)**

원주환경연합의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와 운영위원, 전문위원, 지도위원의 특별회비, 개인 및 단체의 후원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개정시행, 08.2.11 개정**)**

1) 이 정관은 1994년 4월 23일 제1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1995년 3월 30일 제2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1996년 3월 21일 제3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4) 이 정관은 1998년 2월 19일 제5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5) 이 정관은 2001년 1월 20일 제8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6) 이 정관은 2002년 2월 2일 제9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7) 이 정관은 2003년 1월 28일 제10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8) 이 정관은 2005년 1월 27일 제12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9) 이 정관은 2006년 2월 8일 제13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10) 이 정관은 2007년 2월 13일 제14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11) 이 정관은 2008년 2월 11일 제15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12) 이 정관은 2009년 2월 13일 제16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13) 이 정관은 2010년 1월 28일 제17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14) 이 정관은 2013년 2월 5일 제20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15) 이 정관은 2017년 1월 19일 제24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16) 이 정관은 2018년 3월 22일 제25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17) 이 정관은 2019년 1월 29일 제26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원주환경운동연합 운영 세칙

--- 2006. 02. 08 제　　정
--- 2007. 02. 13 1차 개정
--- 2010. 10. 13 2차 개정
--- 2013. 02. 05 3차 개정

□ 목　적

원주환경운동연합(이하 원주환경연합)의 운영의 효율화와 정관의 내용 중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운영세칙(이하 세칙)을 둔다.

1. 회원 및 회비의 구분

① 정회원의 구분(2013. 02. 05 3차 개정)

ㄱ. 회원은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ㄴ. 일반회원 이외에는 고문, 지도위원, 전문위원으로 구분한다.

ㄷ. 일반회원은 가족회원, 단체회원, 평생회원, 청소년회원, 자료회원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ㄱ, ㄴ, ㄷ을 제외한 회원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회원가입에 대하여 심의 및 승인한다.

② 회비의 구분

ㄱ. 원주환경연합 회비는 통상적으로 월 10,000원으로 규정하며 회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그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10,000원 이하로 회비의 조정은 상근활동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ㄴ. 가족회원의 회비는 월 15,000원 이상이다.

ㄷ. 청소년회원의 회비는 월 3,000원 이상이다.

ㄹ. 단체회원의 회비는 월 30,000원 이상이다.

ㅁ. 평생회원은 회비는 1,000,000원 이상이다.

ㅂ. 자료회원의 회비는 월 3,000원 이상이다.

2. 공동대표의 추천 및 선출에 대한 규정

① 공동대표의 자격

ㄱ. 공동대표는 3년 이상의 회원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

ㄴ. 회원은 10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추천위원회)의 추천은 이에 대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ㄷ.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회원

② 공동대표의 추천 공지

ㄱ. 운영위원회(추천위원회)는 공동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총회개최 전년도 10월에 공동대표 후보 추천에 대한 공지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ㄴ. 후보 추천기간은 2주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동대표 후보의 추천

ㄱ. 운영위원회(추천위원회)는 자체 논의를 통하여 공동대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ㄴ. 회원의 공동대표 후보 추천은 공지된 기간안에 연명된 추천자 명단과 추천 의견서를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추천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④ 공동대표 후보의 논의

ㄱ. 운영위원회(추천위원회)는 자체후보 및 회원이 추천한 후보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한 후 총회에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⑤ 공동대표의 선출

ㄱ. 운영위원회(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공동대표 후보는 총회에서 소견을 발표하고 동의절차 후 선임한다.

⑥ 공동대표 후보 선임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ㄱ. 총회에서 공동대표 후보의 선임이 의결이 되지 않은 경우, 공동대표 선출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1개월 이내에 비상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ㄴ. 공동대표 선출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의장후보 선정을 완료하고 비상총회를 통하여 의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공동대표 추천기간은 1주일 이내로 한다.

3. 상근활동가의 처우와 임무에 대한 규칙

① 상근활동가의 자격

ㄱ. 상근활동가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동대표가 임면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ㄴ. 실무자의 근무기간은 원주환경연합에 근무했던 모든 기간을 총합하여 규정한다.

② 상근활동가의 직위(2013. 02. 05, 제정)

ㄱ. 상근활동가의 직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간사, 부장, 국장 등으로 임명할 수 있다.

ㄴ. 상근활동가의 직위 규정은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규정을 대체로 따른다.

③ 상근활동가의 급여

ㄱ. 원주환경연합에 발령이 나면 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ㄴ. 4대보험은 상근활동가가 부담하지 않는다.

ㄷ. 퇴직금은 사례의 형태로 형태로 지급하며, 월 5만원씩 단체에서 적립한다.

- 1년이상 3년이하는 마지막 급여의 100%를,
- 3년이상 5년이하는 마지막 급여의 200%를,
- 5년이상은 300%를 지급한다.

ㄹ. 상근활동가의 급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1년에 1회 조정이 가능하다.

4. 소모임의 운영

① 소모임의 구성

ㄱ. 소모임은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이 필요 또는 자발적으로 언제든지 결성 및 해산을 할 수 있다.

ㄴ. 상근활동가는 소모임이 결성 및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소모임 대표는 운영위원회에서 소청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ㄷ. 운영위원회가 1년 이상 활동한 소모임의 활동을 심의결정하면 소모임의 회원 중 운영위원의 자격이 되는 1인이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ㄹ. 소모임 구성의 최소인원은 5명이다.

② 소모임의 해산

ㄱ. 소모임의 활동이 없거나 단체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경우 상근활동가는 소모임의 해산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ㄴ. 소모임의 해산이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경우, 소모임 구성원에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및 설명의 기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강원환경운동연합 정관

- 2019. 12 . 3. 제 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강원환경운동연합(약칭 강원환경연합)이라 한다.

제2조 (목적)

강원환경연합은 생명평화참여를 중심가치로 삼아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상)

강원환경연합은 환경연합의 강원지역 조직이다.

제4조 (소재)

강원환경연합의 사무실은 강원도 내에 둔다.

제5조 (사업)

강원환경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2)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3)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제시 사업
5) 환경피해지역과 지역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제반활동
6)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사업
7)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들과의 연대사업
8) 기타 환경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6조 (정당 및 정치활동)

공동대표, 사무국장은 정당의 당직을 겸할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가입 및 상실)

1) 강원환경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를 회원으로 하며 가입과 동시에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된다.

① 강원환경연합은 강원도내 지역조직의 회원을 소속 회원으로 규정한다.

② 강원환경연합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회원은 '강원연합 회원'으로 하며 지역조직이 있는 소재지에서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③ 강원환경연합이 신규 지역조직을 추진하면 해당 소재지의 '강원연합 회원'을 이관해야 한다

④ '강원연합 회원'의 의사결정 권한의 부여는 당 회계연도에 월 회비를 6회 이상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제8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강원환경연합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 강원환경연합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9조 (상벌)

1) 강원환경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강원환경연합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조 직

제10조 (대의원총회)

1)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위임을 포함한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을 구성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대의원총회는 지역조직 의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지역조직 회원 50명당 1인으로 구성한다.

제11조 (대의원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상임대표가 공지한다.

2) 임시총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의원 1/10 이상의 요청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2조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공동대표의 선출
3) 감사의 선출
3) 운영위원의 선출
4) 결원 운영위원의 추인
5) 사무처장 임면의 승인
6) 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7) 강원환경연합의 해산의결. 단 이 경우 대의원 2/3 이상의 참석과 지역조직 상시 의결기구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8) 기타 안건의 의결

제13조 (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지역조직에서 추천하는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2)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공동대표 중 1인은 상임대표를 겸한다.
4) 상임대표의 유고시, 공동대표단에서 잔여 임기의 상임대표를 선출한다.

제14조 (감사)

1)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이다.
2) 감사는 운영위원과 겸직할 수 없으며, 보선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감사는 조직운영, 예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강원환경연합 의결 및 집행기구이다.

1) 운영위원회는 강원환경연합의 상임대표와 사무처장, 지역조직 의장과 사무국장, 지역조직에서 추천하는 운영위원 또는 회원의 각 1명, 5명 내외의 '강원연합 회원'을 포함하여 25인 내외로 구성하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주관하며 운영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1) 회원가입탈퇴의 승인
2) 결원 운영위원, 감사의 선임
3) 사무처장의 추천
4) 예산, 결산, 활동의 심의 및 집행
5) 회원모임의 결성승인 및 해산의 결정

6) 총회 상정의안 심의

제17조 (고문 및 지도위원)
강원환경연합은 환경에 관심있고 지역사회에 덕망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고문과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 (전문위원회)
환경운동 및 조직발전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들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 (사무처)
강원환경연합은 회원간 소통과 본회의 사업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1)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다.
2) 상근활동가는 사무처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승인한다.
3) 활동가에 대한 처우와 임무, 직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 (회원모임)
강원환경연합은 회원의 자발적인 환경운동의 참여를 위해 회원모임을 결성할 수 있다.
1) 회원모임은 '강원연합 회원'으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회원모임은 1인 이상의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21조 (회계년도)
강원환경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2조 (재정운영)
강원환경연합의 운영은 '강원연합 회원' 회비, 중앙 지원금, 지역조직 분담금, 그리고 개인 및 단체의 후원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